**계0206 Note**

**◆ Cross check : 행0605 / 니골라당 (인터넷 자료)**

Ω행0605. 이에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믿음으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안티오케이아(안티오케이아: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 안디옥)의 개종자(프로쎄뤼토스:외국으로부터의 도착자,유대교의 개종자,개종,입교,들어오다)인 니콜라오스를 그들이 선정하니라.

And the saying pleased the whole multitude: and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Ghost, and Philip, and Prochorus, and Nicanor, and Timon, and Parmenas,

and Nicolas a proselyte of Antioch:

**니골라 당 [ Nicolaitans ]**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惡)이요 영(靈)만이 선하므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다(계 2:14-15, 20).

한편, 이처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 자유주의(무율법주의) 경향을 지닌 니골라 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물(일곱 집사들 중 한 사람인 니골라 등)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혹자는 니골라 당을, 일상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과 이교 세계의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혼용한 혼합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지닌 무리들(그룹)에 대한 상징적 명칭으로 보기도 한다.

**니골라**

1.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일곱 집사 중 하나(행 6:5).

2.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에 의해 니골라당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음.

3.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음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오용하여 육신의 죄악을 조장하게 하였음(갈 5:13).

**니골라당의 사상**

1.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3. 인간의 구원에 육체는 중요치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결론**

현재도 이 사상과 똒같은 가르침으로 한국교회를 잠식해 가는 무리가 있다. 니골라당의 사상은 마치 현 구원파의 교리와 유사하다(권신찬, 박옥수 계통...). 이들은 교묘히 정통교단인 듯한 간판을 붙이고 나와 외부에서는 분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소위 믿는 그 순간(구원받은 시간)을 강조하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또한 기도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만 해야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니 순진한 많은 양떼들이

미혹 받고 있다. 여하튼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회개기도를 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되며, 구원 받은 시점이 언제냐 등의 질문 등으로 교리전파를 하는 행위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니골라당의 소행인 것이다. 이같은 교리가 악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묘히 죄와 타협할 수 있는 편안한 통로를 갖게 한다는 데 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인데,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자유롭게 열어주게 되니 그 본질이 마귀의 사상인 것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도 함께 상고해야할 중요한 대목이다. 발람은 한 두푼 물질에 눈이 멀어 마귀의 하수인들을 따라간 자며,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니... 종말로 볼 때 음란, 탐심의 생활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며 교회의 외적 성장, 비대화에 치우치는 잘못된 종교지도자들 모두가 이 교훈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